

빛나는 사람들

<https://nlct.org>

email: newlighttampa@gmail.com

《2023년 3월 발행》

창간호

김섭리 목사 신앙 칼럼(1)

신앙 칼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상의 형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학문이 바로 기독교 미학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신 몸의 신학이며 성육신의 신학입니다.



목사님 부부

단지 자연의 풍경이나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던 창조론의 경계를 넘어 신앙의 감정과 진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갖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예술과 신앙, 미학적 경험, 신학적 미학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회와 신학은 신앙의 참(진)과 그것을 살아내는 행동(선)에 대해서 설교해왔지만, 신앙의 아름다움(미)을 깊고 넓게 성찰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시화 되고 형태화 된 것임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뿐이라 여기며 인간의 지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것은 아직 서툰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

씀을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는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상황화 하고 실제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성과 논리를 통해 올바로 전해져 왔다고 생각한 진리, 복음이 실은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방향성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는 성찰이 최근에 와서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빛교회에 부임해 온 지 벌써 일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복음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음, 온전한 회복,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 지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 감성을 추구하는 신앙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찾아, 그 아름다운 형태를 일상에서 표현하고 삶 가운데 조성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짜데카, 샬롬, 토브의 회복을 풍성히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감격적인 만남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8),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사 1:20, 호 4:1).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마 5:8) 이라고 하시고 바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후 3:18)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라고 했으며, 사도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감각을 통해 풍성하게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성경의 저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갖 피조물 속에서 모든 감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또한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음악과 가사를 통해 생겨나는 마음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통해 향유하는 예술적인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을지, 그 영광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며 그 영광을 통한 기쁨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리의 복음과 함께 새롭게 발견해갈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이 칼럼을 통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빛교회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러한 관점으로 제자훈련과 성경연구를 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팀사역을 펼쳐 갈 것이며,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탬파지역에서 새빛교회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으며, 함께 이 꿈을 이루어나갈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성찬예식:** 격월로 열리는 성찬예식이 3월 5일에 있습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훈련을 수료한 새가족을 위한 환영회가 3월 26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금요찬양기도회:** 매주 첫 번째 금요일에만 열리던 현장 금요찬양기도회가 3월부터 매주 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 **Vacation Bible School(VBS):**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동안 "Twist & Turns"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대상은 1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 **SEED Youth 수련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2022 성도총회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2022 성도총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가족환영회를 마치고 등록된 성도들(총 94명)로 위임장을 포함해서 5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담임목사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찬송, 기도, 성도총회 회칙, 지난 성도회의 보고, 2022년 사역보고, 2023년 중점사역, 재정보고 그리고 기타 안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2023년 중점사역은 다음과 같다.

1. 3개의 사역원과 25개의 사역팀
2. 목장체제: 가정교회의 구성으로 5개월간의 목자훈련 후에 시작
3. 리모델링의 본격화: 리모델팀의 사역 규모와 예산 산출, 서베이팀의 우선 순위 서베이
4. 사역의 시스템 구축: 교회의 예산 산출, 사역계획 작성과 메뉴얼화
5. 헌금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스도의 몸, 멤버로서의 의무
6. 회계년도: 10월

<2023년 새빛교회 팀사역 조직표>

예배/찬양 사역원(이재호)	공동체/교육 사역원(임형주)	선교/행정 사역원(여신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기획/진행팀(이재호) • 방송/미디어팀(이향림) • 예배환대/새가족팀(김영주) • 성례팀(김제숙) • 동시통역팀(여신연) • 새빛워십팀(박영미) • 새빛 오케스트라(신은녕) • 특별 성가대(정승혜) • 중보기도팀(정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장사역팀(임형주) • 제자훈련사역팀(유상호) • 도서팀(임상희) • EM 고등부(여미란) • EM 중등부(이은경) • EM Kingdom Zone(송지호) • EM Sunshine(송미희) • 예닮 청년사역팀(오원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리원 페스티벌(김명희) • 뮤지컬사역팀(이재정) • 문서사역팀(조현숙) • Survey/홍보팀(백정훈) • 특별환대 사역팀(박현영) • 재정팀(여신연) • 리모델팀(천병진) • 건물관리팀(서오식)

교회 소식

금요찬양기도회

현장 금요찬양기도회가 2월 3일 8시에 열렸다. 탬파 제일 감리교회 신장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 특별히 찬양기도회에 맞추어 신장희 목사님은 Bagpipe를 연주하며 강대상에 오르셨다. 말씀을 전한 후에는 Saxophone으로 여러 찬양을 드렸다. 그동안 첫 번째 금요일에만 드리던 현장 찬양기도회가 3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드리지게 된다.



사진: 최성미 집사 제공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예배 참석이 어려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최예건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금요일예배가 열리기 때문이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은 특별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중고등부는 볼링장이나 레이저어택과 같은 활동을 하고,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영화를 보거나 소품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부활절 특별 성가대는 연습 중



2월 5일부터 시작한 부활절 특별 성가대는 목사님의 인도로 부활절인 4월 9일 전까지 매주 연습이 있다. 기존의 성가대원과 함께하는 이 성가대 연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연습 시간은 매 주일 1시 30분부터 2시 10까지로, 관심이 있는 분은 팀장인 정승혜 집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일학교 피크닉

2월 12일, Lettuce Lake Conservation Park에서 주일학교 피크닉이 열렸다. 주일학교 예배 후, 12시쯤 피크닉 장소로 향했다. 바람도 몹시 불고 물방울도 살짝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줄다리기 등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으로는 햄버거와 핫도그가 제공되었다.



중보기도사역팀 1주년 감사예배

중보기도사역팀(팀장: 정혜영 권사) 1주년 감사예배가 2월 19일 2시에 본당에서 열렸다. 김섭리 목사님 외 29명이 참석한 이 감사예배는 중보기도사역팀장인 정혜영 권사의 감사 기도와 11명으로 구성된 팀원의 특송으로 시작했다. 특별히 이동화 자매의 중보기도(아버님 급성위암 회복을 위한)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한 시간이 있었다. 눈물어린 간증에 몇몇 사람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예배 후에는 팀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가 이어졌다.



예담 청년부 뱅킷

2월 26일 오후 4시 친교실에서 예담 청년부를 위한 뱅킷이 있었다. 참석 인원은 청년들 14명 외에도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여 음식과 함께 친교를 나눴다. 메뉴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삼겹살로, 맛있는 된장찌개와 새콤달콤한 야채무침도 함께 곁들여 나왔다.



사진: 박소연 자매 제공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2월부터 시작한 팀사역으로 우리 예배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 1. 동시통역:** 여신연 안수집사의 동시통역으로 영어 번역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통역기는 환대위원에게 부탁하면 된다.
- 2. 찬양 인도:** 김섭리 목사님의 리드로 새빛워십찬양팀이 인도한다.
- 3. 헌금:** 헌금 순서가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헌금함(본당 안 입구)에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하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

2월 6일 새벽(현지시간) 7.8 규모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을 강타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형언할 수 없는 비극, 우리 공동체의 고통, 인명 손실과 파괴 앞에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세계 최빈국 50개 이상의 교회와 협력하는 기독교 자선 단체인 Tearfund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 안내서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도 방법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기도 내용>

1) 비상 대응을 위해

-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달라고
- 도로와 교량의 긴급 서비스와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 실종된 사람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 비와 눈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간구
- 의료 종사자들을 위하여

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위로와 부상당한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 생계 수단을 잃은 사람들에게 쉼터, 음식, 물, 따뜻함이 제공되도록
- 장애인, 고아, 임산부, 수유모와 같은 취약자를 위해서

3) 교회 파트너를 위해

- 즉각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지원할 방법에 대한 계획에 지혜와 자원을

위해서

-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랑 받고 격려 받는다고 느끼도록
-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 다른 교회들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돌보는 행동에 연합할 수 있는 영감을 주도록

4) 평화를 위한 기도

- 10년 이상 분쟁을 겪은 시리아인들의 지속적인 평화와 회복을 위해
- 지진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와 위안과 희망을 위해

<기도 방법>

1) 지도를 사용한 기도

- 지도를 보면서 특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성령님을 초대
- 선택한 지도 위에 손을 얹고 그 장소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

2) 아이들과 함께 기도

- 레고나 듀플로와 같은 빌딩 블록을 사용하는 기도
- 함께 집을 짓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고 설명
- 만든 집에 "평화의 집"과 같은 이름을 부여하고 희망, 따뜻함, 기쁨, 침대, 음식 등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질문
- 블록이 없다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도 된다.
- 기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집안에 만든 집을 놓아둘 것

3)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기도

- 오랜 분쟁과 지진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 고요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
- 마태복음 11:28-30을 반복하여 읽어서 익숙해지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이 구절을 묵상
- 이 구절을 사용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
-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도록
- 당신 안에 또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끝맺음

4) 애통의 시를 써서

- 시편은 고통과 아픔과 탄식의 노래
-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편 몇 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
- 이 위기에 대해 하나님에게 애통의 시편을 쓰고
- 이 불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시도록 기도

이 외에도 이동 중에 하는 기도, 금식기도, 식사를 나누면서 하는 기도 등도 제안한다.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는 터키의 새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튀르키예 공화국이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국가 종교가 없는 세속 국가로 종교가 보장된 나라다.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으로 대다수는 수니파이고 약 0.2%가 개신교 및 유대교 등이다. 개신교인은 약 15,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약 170개의 크고 작은 공동체로 대부분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 같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바울선교회 2020년 11월)

교회사역팀 소개

2023년 중점사역인 3개 사역원과 25개 사역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매월 각 사역원에서 한 팀씩 총 3개의 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자 받은 은혜와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각 팀의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기획/진행팀 예배 (찬양 사역원)

예배/찬양 사역원은 예배를 위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기획/진행팀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에 관련된 모든 준비 작업을 하는 팀입니다.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그리고 특별 예배 등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스테이지와 마이크 오디오와 조명, 주보, 헌금봉투 등 예배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은혜롭고 순조로운 예배를 위해서 방송팀, 음향팀, 영상팀, 찬양팀, 성례팀, 동시통역팀 등과 협업하여 예배 시 모든 순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팀장은 이재호 안수집사로 총 9개의 팀이 있는 예배/찬양 사역원의 사역원장도 담당합니다.

목장사역팀 공동체 (교육 사역원)

공동체/교육 사역원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목장사역팀은 가정 교회 구성 사역을 담당하는 팀으로, 팀장은 임형주 안수집사이며 팀원은 5개월 이상의 목자훈련을 마친 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목장의 필요와 상황을 파악하여 목장별 수련회 일정을 계획하고 목자들의 훈련일정을 계획하고 목자들의 훈련 스케줄과 출석을 관리하며 목원의 재편성과

분가를 결정합니다.

공동체/교육 사역원장이기도 한 임형주 안수집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영어 중고등부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그래픽 디자인을 돕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둘이 있고 아내인 임상희 집사는 재정부와 도서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분이 함께 영어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임형주 안수집사 부부>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 16-19)이며, 좋아하는 찬양은 "10,000 Reasons"입니다.

문서사역팀 선교 (행정 사역원)

예배당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주보, 바로 그 주보와 월간 소식지인 "빛나는 사람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지 "빛나는 사람들"은 교회 행사를 비롯하여 성도들 소식을 나눔으로 성도 간 교제와 친밀도를 높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식구가 된 새가족에게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템파베이 지역 소식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곁들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문서사역팀은 한 글자, 한 문장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서사역팀의 팀장은 조현숙 집사로, 팀원으로는 곽봉선 집사, 박혜영 집사, 안지연 자매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회색 머리가 인상적인 조현숙 집사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스키 강사를 했을 정도로 스키 타기를 좋아하며, 은퇴한 남편과 탬파 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으로는 출가한 딸과 군인인 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입니다.



- 구 인 -

- ▶ 월간지 “빛나는 사람들”에서 인재를 구합니다.
- ▶ 모집분야: 취재 기자
- ▶ 자격: 새빛교회에 등록된 성도
- ▶ 지원방법: 문서사역팀 팀장(조현숙 집사)에게 문의
- ▶ 급여: 하늘은행으로 입금(예금주: 하나님)

나의 간증

저는 10년이 넘게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이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아이 둘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미국 땅에서 낡고 기르며, 거기에 주말도 없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면서 저도 모르게 심각한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하게 되고, 안 되는 영어가 더 안되어 맨붕에 빠지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특히 저의 직업 특성상 손이 떨리면 안 되는 데 갑자기 손을 덜덜 떠는 저를 보는 직장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주님 차라리 저는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똑똑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공황장애로 시달린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버틴 지 10년이 넘어 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수록 저를 고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 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죽음의 문턱을 밟게 하시는지, 도대체 뭘 바라시기에 이런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는 건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배 중에 다른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부들부들 떨리는 저의 손을 누가 볼까 싶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빛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동안 제가 너무 많은 것들에 놀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저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의 문턱에 서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서 계심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를 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생긴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나의 삶을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야곱의 환도 뼈를 치신 것처럼 저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서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불품없고 연약한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들어 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중 찬양을 하면서 손을 올려도 이제 떨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성미 집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문서사역팀 곽봉선 집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으로, 단어 뜻 그대로 사(4) x 순(10)의 의미이다.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참된 자아를 추구하고 영적인 준비를 갖춘 뒤에 부활절을 맞아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려는 데 있다.

40은 성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됐으며(창7:4),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나이 산에 40일 동안 있었다(출24:18). 히브리인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으며(신8:2), 사울, 다윗, 솔로몬은 각각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으며 (행13:21, 왕상2:11, 대하9:30), 니느웨 시는 40일 동안 회개했다(요나3:4). 예수는 황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눅4:1),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르시다가 승천했다(행1:3).

사순절의 시작을 '재의 수요일'라 하며, 2023년 재의 수요일은 2월 22일이다. 재는 유대인들의 참회 표시였다. 회개와 슬픔의 표지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루 옷을 찢는 참회예식을 거행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마11:21, 눅10:13).

사도 바울이 사용한 로마 시민권의 위력

2천년 전, 고대 지중해에는 마법의 주문이 하나 있었다. "CIVIS ROMANVS SUM(나는 로마 시민이다)." 키케로의 '베레스 탄핵연설'에 등장하는 이 주문 하나면 지중해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았다. 과연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력한 위력을 지녔을까?

로마 시민권은 성별, 혈통,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개념으로 완전한 시민권은 오직 남자들만이 주장할 수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자는 로마의 영향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렸으며, 마치 예전의 미국 시민권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행22:28)은 일생에 두 번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 한번은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출옥될 때(행

16:37), 또 한 번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군중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천부장에게 의해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에 사용했다(행22:25).

로마 시민권의 특권으로는 시민회의 일원으로 참정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았다. 합법적으로 재판 받을 권리, 유죄로 판결되더라도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로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아무리 높은 로마 관리라도 심한 문책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든, 재판을 받는 로마 시민권자는 시저에게 상소할 수 있었다. 바울의 재판 중 유대인의 총독 베스도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행 25:12)이라 한 것은 이 권리의 발동으로 바울은 로마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몇 년을 머물렀다.

책소개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이 책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기원후 50년 시대 일주일간의 모습을 가상의 역사소설로, 1세기 로마의 정치, 사회, 지리,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역사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행간을 복원했다. 지은이 제임스 L. 파판드레아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초대교회 역사와 로마 제국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회사 및 역사 신학 교수이다.

노예에서 해방된 그리스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인 '스다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내용으로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성경을 읽다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은 읽고 있으면 마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제: A Week in the Life of Rome

출판사: 북오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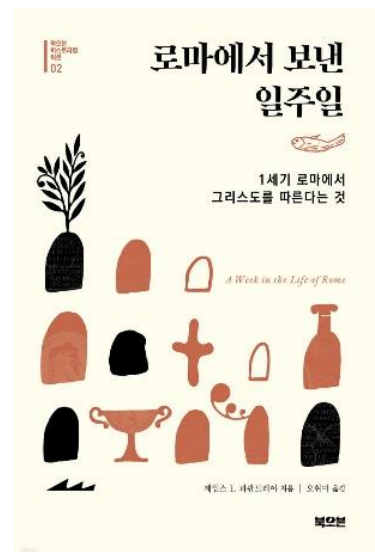
지은이: 제임스 L. 파판드레아 James L. Papandrea

옮긴이: 오현미

출판일: 2021년 8월 31일

쪽수: 288쪽

구입처: 교보문고나 Yes24에서 eBook 가능
(교회 도서부에서 구입 예정)



지역 소식

플로리다 딸기축제

플로리다 딸기축제가 3월 2일부터 12일까지 303 BerryFest Place Plant City에서 열리고 있다. 약 80개의 탈 것과 게임이 있는 이 축제는 매일 정오에 개장하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어린이를 위한 Kiddie Korral은 매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새로운 이벤트와 다양한 종류의 할인이 매일 다르게 진행된다.

River O'Green Festival



3월 18일 토요일, 탬파 시내에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기념하는 리버 오그린 페스티벌이 열린다. Curtis Hixon Waterfront Park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라이브 음악과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 푸드트럭이 준비되어 있다. 이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밝은 녹색으로 물든 Hillsborough River로,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녹색 티셔츠나 옷, 모자, 스카프 등을 착용하면 된다.

빛나는 사람들 편집위원

발행인: 김섭리 목사

편집장: 조현숙 집사

편집인: 곽봉선 집사, 박혜영 집사, 안지연 자매

탬파새빛교회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Phone: (813) 239-0213

TAMPA | | | | | | | | | |
NEW LIGHT CHURCH